

통신사 'MWC26' 성과

SKT, AIDC 설계구조 개선 컴퓨팅 자원 연결 효율화

컴퓨팅 자원연결 기술사 '파네시아'
MWC26서 공동개발 업무협약
CXL 기술 적용... 자원 선택적 활용
서버단위 고정구조 탈피... 유연화

SK텔레콤이 컴퓨팅 자원 연결 기술 기업 파네시아와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조 혁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AI 모델 고도화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GPU 증설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팅 자원 연결 구조를 바꿔 성능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파네시아는 데이터 이동을 효율화하는 링크반도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여러 장치를 연결해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장치 간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 파네시아와 'CXL 기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조'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CXL 기반 기술을 활용해 장비 증설 없이도 AI 처리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CXL 기술을 적용해 CPU·GPU·메모리를 서버 단위 고정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연결·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 파네시아와 'CXL 기반 차세대 AI DC 구조(아키텍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MWC26 SKT 미팅룸에서 기념 촬영 중인 정석근 SKT AI CIC장(왼쪽)과 정명수 파네시아 대표./SKT

존에서 서버 내부에 제한됐던 자원 연결 범위를 여러 대의 서버를 묶은 랙 단위까지 확장해 필요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GPU 간 협업 연산 과정에서 범용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던 기존 방식 대신 CXL 기반 직접 연결 구조를 적용해 데이터 전송 과정을 단순화하고 연산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서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 환경에 적합한 구조 설계를 맡고, 파네시아는 링크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자원 연결 구조를 랙 단위 이상으로 확장하는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기업, 개발지식·코딩 없이도 맞춤형 AI 에이전트 만든다

KT, MWC26서 '에이전트 빌더' 공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제작 가능
기술개발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 완화
향후 업무특성 반영 서비스 제공도

KT가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 산업 현장의 AX(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제작 플랫폼 '에이전트 빌더'를 공개했다.

에이전트 빌더는 기업이 별도의 개발 지식이나 코딩 없이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

사용자는 미리 준비된 업무 템플릿과 대화 모델을 조합해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사용 목적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시스템을 연결한 뒤 응답 방식 구성과 배포 과정을 거쳐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배포 이후에는 실시간 로그 분석과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자동화 에이전트'는 회의 정보와 녹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자 분리 등 전처리를 수행한 뒤 핵심 안건과 결정 사항을 구조화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부서와 처리



참관객들이 KT 에이전트 빌더와 산업별 AI 템플릿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 /KT

기한을 반영해 공문 양식에 맞춘 문서 초안을 생성하고,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검토와 결재까지 이어지는 업무 흐름을 지원한다.

KT는 향후 산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AI 템플릿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제조·공공 분야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템플릿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도입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또한 KT는 에이전트 빌더 기능을 포함한 통합 AI 플랫폼 'K 인텔리전스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AX 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와 RAG(검색증강생성) 등 주요 기능을 모듈 형태로 제공해 기업 환경에 맞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서현 기자

美 엔트로픽 퇴출에 실리콘밸리 연대... 챗GPT '별점테러'

구글·오픈 AI 직원 등 공개서한 서명
소비자 시장선 '클로드' 이용 급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 엔트로픽의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직원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연대 움직임에 나섰다. 소비자 시장에서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이용이 급증하며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4일 현지시간 실리콘밸리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직원 약 830명과 오픈AI 직원 약 100명 등 900여 명은 '우리는 분명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AI 사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자사 경영진에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직원들은 "국방부는 경쟁사가 굴복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기업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 전략은 서로의 의사를 모를 때만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업계의 공동 이해와 연대를 위해 공개서한을 작성했다"고 설

명했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와 경영진, 투자자 등 180여 명도 별도의 공개서한을 통해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등 록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논란 이후 소비자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이용이 빠르게 늘었다. 클로드는 지난달 28일 미국 앱 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Chat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앱 다운로드 수

는 지난달 27일 하루 만에 37% 증가했고 다음 날에도 다시 51% 늘어났다.

반면 챗GPT는 오픈AI가 미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 이용자 반발이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챗GPT 앱 삭제율은 하루 만에 295% 급증했다.

웹 분석업체 스탯카운터도 2월 한 달 동안 챗GPT 점유율은 5.5%포인트 감소한 반면 클로드 점유율은 같은 기간 2.7%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앱스토어에서는 이용자들의 이른바 '별점 테러' 현상도 나타났다. 클로드는 별점 5점 평가가 늘어난 반면 챗GPT에는 최저점인 별점 1점 후기가 급증했

다. 실제로 챗GPT 1점 후기는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775% 증가했고 다음 날에도 전날 대비 100% 늘어났다. 같은 기간 5점 평가는 약 50% 감소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사회 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국방부 계약 논란에 대해 "기회주의적이고 영성하게 보였다"면서 "AI가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사대 진화에 나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엔트로픽이 실수했다"며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웍스, 행정기관 협업 플랫폼 선정

클로바노트 등 다양한 AI 기능 적용

네이버클라우드의 자사의 AI 기반 업무 협업 플랫폼 '네이버웍스'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협업 플랫폼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AI 공동 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이 내부망에서도 보안 걱정 없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검증했다. 네이버웍스는 기능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참여 부처의 협업 플랫폼으로 최종 채택됐다. 특히 보안이 핵심인 행정망 환경에서 CSA P 인증을 받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형태로 제공돼 공무원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네이버웍스에는 회의 내용을 자동 정리하는 '클로바노트', 부처별 업무 상황에 맞는 AI 어시스턴트를 제작할 수 있는 'AI 스튜디오' 등 다양한 AI 기능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행정망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업무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메일, 메시지, 드라이

브 등 20년 이상 축적된 서비스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별도의 교육 없이도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의 전용 앱 설치 없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실제 시범 서비스 이후 약 9500명의 공무원이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며 업무 효율 개선을 체감했다. 행정안전부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7%가 사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이번 도입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70만 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용 네이버웍스에 적용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내 멀티모달 모델을 추가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아우르는 AI 행정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최빛나 기자

메타빌드, 기존 업무에 AI 시스템 연결

공공기관 등에 'MESIM AX' 공급

메타빌드가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기존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전사적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MESIM AX'를 공공기관 등에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MESIM AX'는 기존 연계 미들웨어 제품 'MESIM'과 AI 제품군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ESB, API 게이트웨이, 망 연계 등 기존 연계 기술에 LLM, RAG, 코드 생성 기능을 결합해 기업 시스템과 AI를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연계 서비스 생성과 관리 기능을 자동화하고 대시보드와 관측 기능을 통해 운영 상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데브옵스 에이전트' 기능

이 포함된다. 자연어로 입력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항목과 인터페이스, 메시지 규격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매핑하는 방식이다. 메시지 전달과 변환, 어댑테이션 등 연계 프로세스를 자동 설정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 기능도 제공해 개발 과정을 단순화한다.

또한 관측 기능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 시스템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다.

AI 시스템과 기존 서비스 간 연결을 지원하는 'MCP 게이트웨이'도 함께 제공된다./김서현 기자